

# 거세지는 이사장 퇴진 요구...조선대 끝모름 내홍

### 범대위, 이사회 불공정 운영 등 특별감사 요청...충돌 우려에 경찰 출동도 법인 측 "사유화 주장 부당"...이사장은 범대위 간부 6명 고소 갈등 심화

조선대학교에서 학교법인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등 학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구성원들이 이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한 데 이어 최근에는 교육부에 법인 이사회의 불공정한 운영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경찰이 학내에 출동하고 이사장은 퇴진운동측 간부들을 명예훼손과 모욕혐의로 고소하는 등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3일 '범조선인 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에 따르면 조선대 교수평의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범대위가 지난 6월 출범한 이래 4개월여 동안 이사장 퇴진과 법인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7월과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형 이사회 도입과 김이수 이사

장 퇴진을 촉구한데 이어 천막농성과 함께 지난 10월 4차 퇴진운동을 벌였다.

범대위는 "법인의 과도한 학사 개입으로 학사 행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글로벌대학30 사업 등 대학의 중요한 업무를 자주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며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이사장은 퇴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사장이 총사업비 1조 2000억원에 달하는 병원 신축을 구성원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다 구성원의 반발로 좌절되는 등 대학의 흥망이 걸려있는 의사결정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무책임한 대학경영으로 일관해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이사장과 이사회 파행 등에 대해 교육부에 감사도 요청했

다.

범대위는 보도자료에서 "이사장은 공익형 이사회 구성에 대한 구성원의 요구를 무시하고 1인 독재체제 구축에만 몰두했다"며 "이사장은 사립학교법의 취지를 어기고, 자신의 권력을 행사해 개방이사를 선임했다"고 주장했다.

범대위와 이사회 간의 갈등 와중에 학사사무를 맡고 있는 정제열 부총장 등 보직 간부 10명도 사퇴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학내 갈등은 최근 경찰이 출동하는 등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으로 확산하고 있다.

범대위가 지난 10월 14일 4차 이사장 퇴진 운동 이후 이사회가 열리는 본관에서 이사장 면담 등을 요구했다 소란이 일자 경찰 20여명이 출동하기도 했다. 경찰의 중재로 다행히 물리적인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법인 이사장은 이사장 퇴진운동과정에서 범대위 측이 학내에 게시한 현수막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범대위 간부 6명을 광주동부경찰에 고소해 법적 대응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범대위 측은 '광주학살 원흉 살인마 전두환 앞잡이 이사장 물러나라'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법인 측은 "이사의 장기연임을 제한하려고 정관을 개정했고, 이사장도 임기를 마치면 직을 내놓기로 약속했는데 사유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병원신축에 대한 논의는 학내 구성원 다수가 참여한 논의를 거쳐 이사회에 승인을 요청해 추진했으나 용도변경(중상향) 절차상 문제와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승인을 보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대학30사업 탈락과 관련해 법인은 영을 평가하는 지표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면서 "범대위가 이사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이 적힌 현수막 60여장을 학내에 게시해 이사장 개인적으로 법적대응에 나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현직 전남도의원 차량서 숨진 채 발견

현직 전남도의원이 자동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3일 나주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0분께 나주시 다도면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서 더불어민주당 A(47) 전남도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A의원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서 A의원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의원은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장혜원 기자 hey1@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 안타까운 추락사고들

### 광양서 40대 여성 이불 털다가 아파트 16층 베란다서 추락 사망 광주서 문 잠긴 자기 집 들어가려다 건물 외벽 5층서 떨어져 부상

광주·전남에서 추락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3일 광양경찰과 광양소방에 따르면 전남 오전 10분께 광양시 한 아파트 16층에서 40대 여성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베란다에서 이불을 털다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집 안에는 A씨의 자녀 2명이 있었지만, 사고 상황은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경찰은 범죄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전 7시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서도 B(52)씨가 건물 5층에서 떨어져 다쳤다.

필과 허리 등을 다친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소방당국에 "열쇠를 집에 두고 나와 외벽에 설치된 배관을 붙잡고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추락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소속 RCY단원들이 지난 2일 오전 광주시 남구 사직동 주택가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 광주지법 "흥기 휘두른 고교생 퇴학 처분 정당"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이 아닌 부모의 진술만 청취하고 퇴학 처분을 내린 학교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1부(재판장 김경숙)는 고등학교생 A군이 전남지역 한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5월 버스를 타고 학교여행을 가던 중 뒷자리에 앉은 학생이 자신의 좌석을 발로 자꾸 찬다는 이유로 흥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A군은 접촉제를 이용해 흥기를 손에 붙이고 범행을 저질렀고 제압당하자 다른 손으로 준비한 또 다른 흥기까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6월 29일 A군에

대한 퇴학처분 조치를 심의·결정해 통보했다.

이에 A군 측은 "A군이 행동장애 등을 이유로 직접 출석해 진술하지 못해 학부모의 의견만 듣고 심의가 이뤄졌다. 초·중등 교육법상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 받지 못해 절차상의 하자 등이 존재한다"면서 "평소 피해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사전에 심의위원회 절차를 고지했고 보호자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으며, A군의 불이익이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피해 학생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중한 점, 배움의 기회가 영구히 박탈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퇴학 처분을 감경할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BJ 노출 장면 캡처 유포 협박한 40대 징역형

### 광주지법, 징유 2년 선고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다 여성 BJ의 노출 장면을 캡처해 공개할 듯이 협박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여성 BJ인 B(26)씨에게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보내 유포할 듯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B씨가 방송 중 실수로 신체

일부가 노출되자 이 장면을 캡처해 보관하다 B씨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노출 영상과 사진을 다 가지고 있고, 커뮤니티에 사진이 퍼지면 피해가 갈 것"이라며 "연락을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 "반성하고 있고, 한 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더 이상 연락하거나 협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문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